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열렸다

세금낭비 불교 비판 광고  
종교갈등 부추기는 정치공작

개신교 단체들이 7월 14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교계가 문화재·템플스테이 등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천문화적인 세금을 받아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에, 불교계 단체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의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7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개신교 단체의 악의적인 신문광고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작태로 정치공작 냄새가 풍긴다"고 비판했다.

연사연은 이날 '2004~2008년 동안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학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교육

보조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충당한다"며 "개신교야말로 결국 선교행위를 목적으로 국가의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사연측은 개신교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교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과거 유령단체들이 불교계를 비판한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광고게제의 주축은 한기총 소속단체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개신교의 공식단체인 한국교회연립인회·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광고게제의 주축은 한기총 소속단체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개신교의 공식단체인 한국교회연립인회·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연사연 22일 반박 기자회견

"개신교가 선교 목적으로 국고 낭비"

부는 매년 현황 사립학교법 제 43조 1항에 의거해 '재정결합보조' 항목으로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결합보조는 1974년 정부가 학교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사립학교가 재정난을 겪게 되자 재정결손을 보조해 주기 위해 마련된 예산안이다.

2008년의 경우 보조금 3조원 가운데 종교사학에 사용된 금액은 63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개신교 4309억원(68.25%), 가톨릭 1106억 원(17.52%)으로 기독교에만 85%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반면 불교계는 452억 원으로 7.16%에 불과하다.

연사연 김영국 운영위원은 "종교사학 321개 가운데 불교단체가 설립한 사학은 22개, 기독교는 276개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지원 편중은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불교계는 이를 두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의 문화재 지원금은 다시 국가적 일로 환원되지만, 개신교의 경우 재정결합

연사연은 "이는 4대강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이 정권에 편에서서 불교계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로 MB정권은 종교평등성을 방치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예산집행을 축소하려는 반헌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계종단은 정부의 국고 지원예산에 대해 투명한 집행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교계는 7월 23일 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이광선, 이하 종지협) 운영위원 회의에서 개신교 단체의 종교 및 불교비방 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불교계는 △종지협 차원에서 종교화합을 위한 역할 모색 △종교화합 호소문 발표 추진 △한기총은 대기총의 행위와 신문광고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할 것 △한기총 회원단체의 신문광고 건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명 등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상연·이은정 기자

소셜 네트워크는 인드라마의 변주

교계도 디지털 혁명의 본질 깨닫고 포교방법 바꿔야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세상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김중태 IT문화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경주로 여행을 갔다. 곳곳에 불교 문화재와 관련된 설명서와 안내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시설들을 보수·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들이다. 하지만 틀린 정보도 많고, 일방적인 설명위주의 내용이다. 학생들은 사람들과 소감이 나 의견을 나누거나, 새로운 내용도 그 자리에서 알고 싶지만 사진만 찍고 돌아서야 한다.

그러나 몇 억원에 이르는 안내시설(키오스크: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 대신 돈 한푼 안 드는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기존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형식과 내용을 확장해 숫자외에 문자의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코드를 붙여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휴대용 카메라를 대는 순간 QR코드가 적힌 웹주소의 문서가 휴대폰에 전송되고, 다른 사람들의 소감이 전송된다. 학생들도 추가로 댓글을 달아 유적에 대한 소감을 표시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는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예술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요 동인 중 하나다.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을 뜻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나 인맥이 곧 소셜 네트워크이고, 마음 앞 정자나 팔레터, 북덕방이 SNS 역할을 해왔다. 단지 오늘날 SNS는 첨단 IT를 이용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할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싸이월드, 미국의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다. SNS는 온라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을 연결해 개인의 취미, 감정, 콘텐츠, 관심사,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체다. 구성원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심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의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평판, 관계, 정체성, 집단, 공유 등의 특징이 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트위터는 낯선 사람들을 친구로 맺고, 네트워크 친구들이 쓴 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관심을 보이면서 관계는 더욱 진척된다. 또 다시 네트워크 친구들도 내가 쓴 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어떤 포교가 가능할까?

불교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스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이가 있다. 스님의 트위터에 팔로어가 되고, 스님은 트위터를 통해 젊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스님은 어떤 방에서 사는지, 사찰 주변 풍경은 어떠한지, 스님이 혼자서 삭발은 어떻게 하는지, 불교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140자의 문구나 사진, 영상을 통해 알린다. 그러면 스님의 팔로어들과 스님은 자



트위터가 4대강 생명살림 운동이 진행 중인 한강선원을 지나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아 블로그에 올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전문화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떠돌아다니는 불교콘텐츠를 웹 상에서 대중공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와 미래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 연결돼 있다는 데 대해 더 감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의 말이다. 중요한 것은 "연결에 대한 철학"이다. 앞으로 '공유'하고 '관계'를 만들겠다는 철학이다. 성공은 행복으로 바뀌 이해한다면 2600년 전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과 큰 차이가 없다. 마크 주커버그가 만약 부처님 제자라면 시대에 맞게 포교의 수단을 제대로 만들어 낸 적이 다.

김중태 IT문화원 원장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아니다"고 설명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연결, 참여, 공개, 공유, 투명, 진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통한 '행복'이라는 최종 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한발 뒤로 물러서려는 이들도 많다. 아예 '그것을 쓰면 우리의 전통적인 면모가 퇴색된다'거나 '옛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는 옛것을 더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공유하거나 의제를 만들어 해결하면서 참 행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삼라만상이 투영된 기술들은 서로서로 다른 구슬들에 투영된다. '인드라마'와 같은 원리다. 모든 개인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가고 있는 것이다.

글=이상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떠도는 불교정보 모아 웹상에서 대중공사도 가능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신뢰를 통한 행복 얻기

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된다.

신도관리도 가능하다. 신도들의 경조사 등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 신도들이 함께 소식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젊은 층이 주 대상일 것 같지만 최근 유명 트위터인이 외수나 정치인 등은 결코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신도 확보 및 포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참여불교제가연대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종교계에도 시민사회단체에도 이런 디지털 혁명의 여파는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디지털 혁명의 본질을 깨닫고 체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앞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협동으로 사회는 진화해 갈 것"이라며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던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내놓고 더불어 다른 사람이 내어놓은 지식, 정보, 아이디어에 나의 그것을 창조

적으로 융합하여 진화시키는 한 명의 협동적 기여자가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승권 불교콘텐츠 온라인 퍼블리싱 프로듀서는 구체적인 안으로 "불교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파편화돼 있다"며 경전이나 문화재 관련 정보, 사찰 설화 등 무형의 정보 콘텐츠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블로거들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배열하듯이 재배열해야 한다. SNS는 취미삼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 법사 방필석

신생아  
작명

개명. 아호. 상호  
역학개인지도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외활동

-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3회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 現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수상서울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9-8259 (빨리오구), FAX 730-8528

전환신청현영,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계좌번호: 306-07-194422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방필석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濟人是必無濟人之이요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濟人改名은必無改名之時라

耕當問奴 (정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